

완도 한우·흑염소 친환경 인증 확대

완도군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및 흑염소' 브랜드 정착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신청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우 번식 농가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인증 기간 동안 출하한 농가에는 출하 가축 장려금을 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경우 1년 단위로 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유행성인사양 관리를 추구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난 한 해 완도군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37농가이고, 인증 농가 모두 인증 비용 전액 지원과 27농가(279두)가 출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친환경 축산물



완도군은 한우와 흑염소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섰다. /완도군 제공

인증 유지 시 1년 단위로 호당 300만원 지급 읍·면 순회 교육 통해 브랜드 홍보 강화 총력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식 부족으로 인증 농가 실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농가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각종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 생균제 공급, 송아지 설사 예방약 공급, 수분조절제를 2배 이상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한 농가 지도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흑염소 브

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친환경 축산물은 무엇보다 위생적인 관리와 사육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흑염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영암 토지표시변경 등기축탁 무료 서비스

경제적·시간적 절감 큰 호응

영암군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축탁 무료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면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축탁 무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사항정정 신청 등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등기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무

료로 등기축탁해주는 서비스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축탁 8,606건으로 4억3,0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나은 군민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해남 다자녀 가구 중고생 교복비·학자금 지원

해남군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중·고교 입학시 교복비 25만원 지원한다.

또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셋째아부터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넷째아부터 학기당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교복지원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이며, 학자금은 추가로 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다른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해상케이블카 4월에 개통된다

교통·숙박·음식 등 점검

목포시는 최근 4월에 개통될 해상케이블카에 대비해 교통, 숙박·음식, 도시경관·환경, 홍보·문화행사, 시민안전 등 5개 분야 53개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시에서는 지난 달부터 종합상황반을 신설하고 각종 연계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대책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카 주차장(유달산 453대, 고하도 395대)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개통시기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케이블카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

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통해 특정지역 교통량 집중을 방지하고, 시내버스 노선 증편, 주말과 공휴일 교통통제 인력 추가 배치 등 다양한 교통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숙박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친절·질서·정결·나눔을 주제로 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목포사랑운동을 전개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가 해양관광도시의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점검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관광객 맞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오는 3월에 시운전을 시작해 4월에 개통예정이다. 탑승 시간은 왕복 40분으로 사전 예약하면 나만의 공간에서 기념품, 프로포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시 제공

진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가 경영비 절감 큰 도움

진도군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7년 임대농기계 사업소 건립과 함께 ▲서부본소 건립(2013년) ▲조도본소 건립(2016년) 등 현재 총 3개소의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12년 동안 맞춤형 농기계 70종 656대의 구입, 총 26,072회에 걸쳐 농민들에게 임대했다.

특히 매년 농가의 임대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임대농기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파손된 농기계를 수리하는 등 올해 영농시기에 맞춰 적절한 농기계를 농가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14개 읍·면 방문 의견 수렴 경영비 절감·농업구조 탈피

신안군은 최근 군정 방향과 역점 시책을 알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박우량 군수는 14개 읍·면을 잇따라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했다.

박 군수는 민선7기 군정방향과 역점 시책을 '소득중심'의 군정활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사계절 꽃피는 신안과 읍·면에 미술관 및 박물관 조성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맞게 잘사는 농업을 대규모화하고 영농법인 단체를 육성해 경영비 절감과 영세한 농업구조를



신안군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신안군 제공

탈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군수는 갯벌과 바다에 미래가 있는 만큼 청년이 돌아오는 수산분야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왕새우, 개게물 등 양식학교를 운영해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귀어하는 청년에게 안정된 소득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렵게 가권 확대와 어선 임대사업, 어구지원 등을 통해 소득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

았다. 군은 야간운항과 관광선 수시운항, 섬과 섬을 잇는 차도선운항 등 다각적인 교통방안을 모색하고 육상에서는 해상교통 시간에 맞춰 공영버스와 광역버스, 맞춤형 택시를 운영하는 등 노선연장 및 운행 확대에 편리한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중이다.

박 군수는 "지금은 도입시기이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사계절 수목 축제에 관광객이 인산인해로 찾아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신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협약

신안군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최근 국가적 차원의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행사와 전시 관련 정보 교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는 양 기관이 섬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도서민의 삶과 해양문화유산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암 서호면 지사협 특화사업 추진

영암군 서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특화사업인 저소득층 밀반찬과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서호면 지사협 위원 19명은 식사가 어려워 반찬지원이 필요한 50가구를 선정해 위원들이 준비한 고등어, 계란 등을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양은숙 공공위원장장은 "앞으로도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국가유공자에 위문품 전달

강진군은 최근 관내 국가유공자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국가유공자 중 71세 이상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 어르신, 1급 중상이하 어르신들을 광주지방보훈청의 협조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공자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 군민과 소통 시간 가져

완도군은 최근 군외면 방문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9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수산 재해 보험비용 어민 자부담률 경감과 수산 관계자와 생산 어민들의 수산경제에 대한 대책 회의 개최를 비롯한 총 100건이 접수됐다. /완도=최규옥 기자